

전승현 전남도체육회 사무처장의 런던올림픽 참관기

‘KOREA’ 자부심 다시 한번 느꼈다

올림픽은 월드컵과 함께 세계 스포츠의 ‘양대산맥’으로, 60억 세계인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대회로 평가받는다.

선수로서 대회 참가는 그야말로 인생의 영광이라고 한다. 더욱이 올림픽에서의 메달 획득, 특히 금메달 수확은 곧잘 ‘로또’ 당첨에 비유되곤 한다.

체육인에게 있어 현지 참관 역시 행운 중의 행운이 아닐 수 없다. 누구나 현장에서의 대회 참가는 승·패 이면에 가려있는 또 하나의 볼거리기 때문이다.

저 역시 이런 행운을 누렸다.

전국 시·도체육회 사무처장들과 지난달 29일부터 8월 4일까지 런던올림픽을 참관했다.

2008년 북경올림픽대회 등 그동안 많은 국제대회를 참관한 일부 사무처장들은 이번 런던올림픽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 “올림픽은 이제 단순한 스포츠 제전이 아닌, 국가별 국력 경연장으로 완전히 변한 것 같다”라고.

체육분야를 가깝게 경험하고 있는 나로서도 이런 평가가 피부로 맞닿았다.

이번 대회는 너무도 완벽하게 잘 준비됐다는 느낌을 받았다.

친환경적인 경기장 시설이며, 경기장마다 발디딤 틀 없이 짙은 어썬 관중들, 이제는 너무도 평범해진 최첨단 미디어시설을 갖춘 중계방송 능력, 그리고 전국민적 공감대 형성 등 그야말로 런던올림픽은 개최국 영국을 포함해 유럽인들을 위한 축제로 성큼 다가왔다.

나는 ‘양궁 대들보’ 기보배(광주광역시청)가 맹활약한 양궁경기나 남자 핸드볼 경기(한국-헝가리)를 관람했다.

양궁 경기장은 대한민국의 축소판으로 다가왔다.

4개 종별에서 금 3, 동 1개 획득이 증명하듯 한국 양궁은 세계 최강이었다. 더욱이 우리나라와 쌍벽을 이룬 미국, 멕시코 등 11개 국가의 감독이 한국인이라는 사

실을 접하면서 한국 양궁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느꼈다.

특히, 영국 하늘에서 태극기가 국기 게양기 맨 꼭대기에 걸려질 때는 나도 모르게 KOREA(코리아)인으로서의 자부심이 솟아올랐다.

반면, 핸드볼경기장에서는 안타까움이 더했다.

2m가 넘는 장신선수들이 즐비한 유럽선수들을 맞아 180cm대 단구들이 펼쳐는 선전은 그야말로 처절한 몸짓이나 다름없어 보였다.

이를 악물고 한발짝 더 뛰고, 톱니바퀴처럼 조직력을 극대화하려 했지만 체력의 열세를 극복하기에는 어딘가 모르게 힘이 부쳐 보였다.

지난 1948년 대한민국이라는 태극기를 앞세우고 최초로 출전한 제4회 런던대회의 힘겨웠던 시절의 모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지나갔다.

경기 관람 후 사무처장들은 “체육의 중요성을 너무도 실감했다. 특히 대한민국의 국격(國格)을 높이는 데 체육보다 더 좋은 왕도는 없다”고 한결같이 진단했다.

아무튼 이번 런던올림픽은 대한민국 국민들을 다시금 뭉쳐내는 최고의 이벤트라 하겠다.

먼저 우리나라의 경기력에 놀랐다.

당초 ‘10-10 전략(금메달 10개 획득, 세계 10위 이내 진입)’을 내세운 우리나라는 6일 현재 금메달 10, 은메달 4개, 동메달 6개를 획득하면서 종합4위를 달리고 있다.

당초에는 중국의 경기력 성장에다 유럽세에 막혀 고전할 것이라는 예상이었으나 진종오(2관왕)가 버틴 사격(금 3, 은 1개), 전남도청 김용률 코치가 총감독으로 맹활약한 펜싱(금 2, 은 1, 동 3개), 양궁(금 3, 동 1개), 유도(금 2, 동 1개) 등의 선전으로 이미 목표치를 달성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오는 12일



까지 열리는 이번 대회가 아직 1주일 이상 남은 가운데 역대 올림픽 사상 대회 최다 금메달인 2008년 베이징때의 13개를 넘겨 남은 두 번째 ‘텐(10)’인 10위권 안착도 무난히 굳혀졌다는 계산이다. 아직도 ‘효자종목’ 태권도를 비롯해 레슬링, 체조 등이 버티고 있다.

그러나 더 큰 수확은 경기력 이면에 감춰진 대한민국의 자부심이라 하겠다.

수영 박태환의 ‘400m 자유형 실격 파동’, 펜싱 신아람의 ‘범춘 1초 오심’, 배드민턴 여자복식의 ‘고의패배 스캔들’ 희생양, 유도 조준호의 판정반복 등 불합리한 판정에 전국민이 들끓었다. 그리고 뭉쳤다.

여기에 홍명보호의 ‘축구 종가’ 영국을 격파한 4강 진출 신화는 ‘화룡점정(畫龍點睛)’을 찍었다.

하지만, 우리가 개선해야 할 부분도 다시 한번 확인했다. 특히 부족한 스포츠 외교력 강화는 시급한 숙제가 아닐 수 없다.

나는 오늘부터 뜬 눈으로 대한민국 선수단의 선전을 응원할 것이다.

사무처 직원들에게도 실컷 응원하고, 탄력적인 근무 운영을 권고했다. 시·도체육회가 한국 체육의 근간이기 때문이다.

“런던에 휘날리는 태극기 한국인 자부심 느꼈다”

전승현 전남도체육회 사무처장 런던올림픽 참관기

올림픽은 월드컵과 함께 세계 스포츠의 ‘양대산맥’으로 선수로서 대회 참가는 그야말로 인생의 영광이라고 한다. 체육인에게 있어 현지 참관 역시 행운 중의 행운이 아닐 수 없다. 누구나 현장에서 대회를 참가하는 승·패 이면에 가려있는 또 하나의 볼거리를 기대한다.

필자 역시 이런 행운을 누렸다. 전국 시·도체육회 사무처장들과 지난달 29일부터 8월 4일까지 런던올림픽을 참관했다.

직접 관람한 양궁과 핸드볼, 이중 ‘양궁 대들보’ 기보배(광주시청)가 맹활약한 양궁 경기장은 대한민국의 축소판으로 다가왔다.

4개 종별에서 금 3, 동 1개 획득이 증명하듯 한국 양궁은 세계 최강이었다. 더욱이 우리나라와 쌍벽을 이룬 미국, 멕시코 등 11개 국가의 감독이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접하면서 한국 양궁의 위대함을 다시한번 느꼈다.

특히, 영국 하늘에서 태극기가 국기 게양기 맨 꼭대기에 걸려질 때는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이 솟아올랐다.

반면, 핸드볼경기장에서는 안타까움이 더했다.

2m가 넘는 장신선수들이 즐비한 유럽선수들을 맞아 180cm대 선수들이 펼치는 선전은 그야말로 처절한 몸짓이나 다름없어 보였다.

지난 1948년 대한민국이라는 태극기를 앞세우고 최초로 출전한 제4회 런던대회의 힘겨웠던 시절의 모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경기 관람 후 사무처장들은 “체



육의 중요성을 너무도 실감했다. 특히 대한민국의 국격(國格)을 높이는데 체육보다 더 좋은 왕도는 없다”고 한결같이 진단했다.

아무튼 이번 런던올림픽은 대한민국 국민들을 다시금 뭉쳐내는 최고의 이벤트라 하겠다. 먼저 우리나라의 경기력에 놀랐다.

당초 ‘10·10 전략’을 내세운 우리나라는 6일 현재 금메달 10, 은메달 4개, 동메달 6개를 획득하면서 종합 4위를 달리고 있다.

그러나 더 큰 수확은 경기력 이전에 감춰진 대한민국의 자부심이라 하겠다.

수영 박태환의 ‘400m 자유형 실격 파동’, 펜싱 신아람의 ‘멈춘 1초 오심’, 배드민턴 여자복식의 ‘고의패배 스캔들’ 희생양, 유도 조준호의 판정반복 등 불합리한 판정에 전국민이 들끓었다. 그리고 뭉쳤다.

여기에 홍명보호의 ‘축구 중가’ 영국을 격파한 4강 진출 신화는 ‘화룡점정’을 찍었다.

하지만, 우리가 개선해야 할 부분도 다시한번 확인했다. 특히 부족한 스포츠 외교력 강화는 시급한 숙제가 아닐 수 없다.

올/림/픽/참/관/기

‘KOREA’ 자부심 다시 느꼈다

전국 시·도체육회 사무처장들과 지난달 29일부터 8월 4일까지 런던올림픽을 참관했다.

북경올림픽대회 등 많은 국제대회를 참관한 사무처장들은 런던올림픽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 “올림픽은 단순한 스포츠 제전이 아닌, 국가별 국력 경연장으로 변한 것 같다”라고.

체육분야를 가깝게 경험하는 나라도 이런 평가가 피부로 닿았다.

이번 대회는 정말 완벽하게 잘 준비됐다는 느낌을 받았다.

친환경적인 경기장 시설, 경기장마다 발디딜 틈 없이 꽂 들어찬 관중들, 이제는 너무도 평범해진 최첨단 미디어시설을 갖춘 중계방송 능력, 전국민적 공감대 형성 등 그야말로 런던올림픽은 개최국 영국을 포함하여 유럽인들을 위한 축제로 성큼 다가왔다.

나는 ‘양궁 대들보’ 기보배(광주시청)가 맹활약한 양궁경기장과 한국과 형가리의 남자 핸드볼 경기를 관람했다.

양궁 경기장은 대한민국의 축소판으로 다가왔다.

4개 종별에서 금 3·동 1개가 증명하듯 한국 양궁은 세계 최강이었다. 더욱이 미국, 멕시코 등 11개국 감독이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접하고 한국 양궁의 위대함을 다시한번 느꼈다.

특히 영국 하늘에서 태극기가 국기 게양기 맨 꼭대기에 걸려질 때는 나도 모르게 KOREA(코리아)인으로서의 자부심이 솟아올랐다.

반면 핸드볼경기장에서는 안타까움이 더했다. 2m가 넘는 장신들이 즐비한 유럽팀을 맞아 180cm대 단구들이 펼치는 선전은 그야말로 처절한 몸짓이나 다름없어 보였다.

이를 악물고 한발짝 더 뛰고, 톱니바퀴처럼 조직력을 극대화하려 했지만 체력의 열세를 극복하기에는 어딘가



모르게 힘이 부쳐보였다.

경기 관람 후 사무처장들은 “체육의 중요성을 너무도 실감했다. 특히 대한민국의 국격(國格)을 높이는데 체육보다 더 좋은 왕도는 없다”고 한결같이 진단했다.

아무튼 이번 런던올림픽은 대한민국 국민들을 다시금 뭉쳐내는 최고의 이벤트라 하겠다.

먼저 우리나라의 경기력에 놀랐다. 당초 ‘10·10 전략(금 10개·동 10개 진입)’을 내세운 우리나라는 6일 오전 현재 금 10·은 4·동메달 6개를 획득하면서 종합4위를 달리고 있다.

그러나 더 큰 수확은 대한민국의 자부심이라 하겠다.

수영 박태환의 ‘400m 자유형 실격 파동’, 펜싱 신아람의 ‘멈춘 1초 오심’, 배드민턴 여자복식의 ‘고의패배 스캔들’ 희생양, 유도 조준호의 판정반복 등 불합리한 판정에 전국민이 들끓었다. 그리고 뭉쳤다. 축구 4강 진출 신화는 ‘화룡점정’을 찍었다.

개선해야 할 부분도 재확인했다. 특히 부족한 스포츠 외교력 강화는 시급한 숙제가 아닐 수 없다.

나는 오늘부터 뜬 눈으로 대한민국 선수단의 선전을 응원할 것이다. 사무처 직원들에게도 실컷 응원하고, 탄력적인 근무 운영을 권고했다. 시·도체육회가 한국 체육의 근간이기 때문이다.

전남도체육회 전승현 사무처장